



소규모공동체주택 개발을 위한 고령자 참여 계획 연구

The User Participated Planning of Small Community House for the Elderly

저자 (Authors)	이연숙, 전은정, 김혜연, 황윤서, 황선희, 조선화 Lee, Yeun-Sook, Jun, Eun-Jung, Kim, Hye-Yeun, Hwang Yoon-Seo , Hwang, Sun-Hae, Cho, Sun-Hwa
출처 (Source)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8(6) , 2019.12, 28-40(13 pag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8(6) , 2019.12, 28-40(13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실내디자인학회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85531
APA Style	이연숙, 전은정, 김혜연, 황윤서, 황선희, 조선화 (2019). 소규모공동체주택 개발을 위한 고령자 참여 계획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8(6), 28-40
이용정보 (Accessed)	서울특별시 202.14.90.*** 2020/01/21 13:5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소규모공동체주택 개발을 위한 고령자 참여 계획 연구**

The User Participated Planning of Small Community House for the Elderly

Author 이연숙 Lee, Yeun-Sook / 정회원,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Ph.D.
전은정 Jun, Eun-Jung / 정회원, ㈜심바이오리빙텍 연구위원*
김혜연 Kim, Hye-Yeun / 정회원, 연세대학교 심바이오틱라이프텍 연구원
황윤서 Hwang, Yoon-Seo / 정회원, 연세대학교 심바이오틱라이프텍 연구교수
황선희 Hwang, Sun-Hae / 정회원, 연세대학교 심바이오틱라이프텍 연구원
조선희 Cho, Sun-Hwa / 정회원, 연세대학교 심바이오틱라이프텍 연구원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tract the need of the elderly for major planning elements of small community housing. This study utilized a small-group workshop method that can induce the elderly more easily and directly to participate in the planning of an appropriate small-scale community housing. The planning elements included the size of the individual unit housing, the size of the neighborhood, the function of the community living space and working space, and the arrangement of the individual dwelling unit and the community space. Visual materials such as 3D scale model, space image cards, icons for furniture for easier understanding by 9 elderly participa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proposed space area of the individual dwellings unit was perceived to be small, space was accepted as an appropriate community space, and sufficient storage was provided. The size of the neighborhood was found to be appropriate within 10 households. Second, the community living space was a place where people could have a chat and rest, and social exchange among neighbors. For the community working space, it was recognized as an opportunity not only supporting the economic community also preventing social isolation of the elderly through providing child daycare service or manufacturing accessories. Third, buildings were preferred in a way where dwelling units with community living spaces are separated from community working space respecting the privacy. The familiar and intimate pediment style of the roof was preferred. During this study, the elderly expressed their hope for a more healthy and independent life such as small-scale community housing. These user participation planning workshops have demonstrated the usefulness in enhancing understanding and empowering the ability to participate in reaching consensus.

Keywords 고령자, 소규모공동체주택, 노인공동체주택, 소규모집단워크숍, 사용자참여워크숍, 주택계획요소, 주거복지
Elderly, Small Scale Community, Elderly Community Housing, Small-group workshop, Participated Planning, House planning element, Housing Welfar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성장의 둔화, 노인부양의 부담 등이 심화되

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연장된 노년기와 더불어 다양한 수요자의 특성에 적절한 주거공급, 서비스 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요구도 확대될 것이다. 특히,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1인가구는 33.7%이며, 부부가구는 33.4%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 독거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¹⁾. 이들 노인가구의 절반은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각종 서비스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처하게 되는 등 빈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unojune@hanmail.net

** 이 논문은 2019년도 BK21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2018 R1A2B6008953).

1) 통계청, 2018 고령자 통계(2018.09.27.), pp.1-73, 2018

곤충으로 전락하고²⁾, 사회취약계층으로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더욱이 초고속 고령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2018년 14.3%에서 2060년 41.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³⁾, 노인의 삶을 영위하는 주거공급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주거지원 정책은 주택공급 확산에 중점을 두어 아파트 위주로 평준화되어 발달해 왔으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다양한 주택유형들이 양적·질적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⁴⁾. 또한 노인주거지원 정책 중에서 2012년에 제정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65세 이상인 사람도 주거약자⁵⁾에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 사회보장제도와 주거공급 정책이 미미하고, 길어진 수명기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여 노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노인주택의 방향이 선회하고 있으며 큰 규모의 소외되고 고립되어진 주택단위 및 시설보다는 Aging in place 개념의 소규모지역사회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국내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현재 지역밀착형 노인전용공동주택, 노인맞춤형주택, 독거노인원룸형 안심공동주택 등이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은 노인의 셀프부양을 가능하게 하며, 자녀에게 부모부양의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 안정망이 더욱 위협해지고 나름대로의 사회적 자본이 길러질 필요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소규모공동주택을 무조건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자본을 스스로 기를 수 있을 것인지, 이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요구가 표출되는지 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취약계층은 각각 다른 사회취약계층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특수한 상황과 유형을 집중적으로 검토 및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생활이라는 생소한 생활방식에 대해 노

인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이들이 스스로 요구를 찾고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서로의 생각을 토의하는 다양한 참여를 폭넓게 시도함으로써 노인들의 공동체에 대한 잠재적인 요구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규모공동주택 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때 계획요소는 개별단위주거의 크기와 이웃규모, 공동생활공간과 공동작업공간의 기능, 개별단위주거와 공동공간들의 배치, 외관특성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사용자가 참여하는 소집단워크숍 방법을 통해 소규모공동주택이라는 주거유형에 대한 반응도 아울러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용자 참여계획 워크숍 과정이 사회취약계층의 공동주택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식 및 합의역량의 증진에 기여함을 실증함으로써 주민 사용자 참여 가능성 인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2. 이론적 배경

2.1.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대안 현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시급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획일화된 아파트 위주의 대량공급으로 다양한 주택유형이 발달해오지 못하였다⁶⁾. 대한주택공사는 1987년 3세대동거형 주택을 공급하였으나, 노인에게 적절한 주거계획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었고,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주거를 제공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나⁷⁾, 일부 저소득층 노인만으로 한정되어 실시되었다. 또한 노인에 적절한 주택공급은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시를 벗어난 지역에 위치하며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어 생활의 활기를 잃어버리는 등 노인주택의 양적공급에만 중점을 두었고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주거정책을 노인복지정책으로 인식하여 왔기 때문에 일반주택정책에 비해 개선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주택정책은 국토부에서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주거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아⁸⁾,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와 대안이 구축되지 못하였다.

한편 건설교통부가 주거에서의 노인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2005년 12월에 ‘고령자가구 주택개조 기준을 마련하면서 전반적인 노인주택에 대한 관심은 시설뿐만 아니

2) 정경희, 강은나, 이윤경, 황남희, 양찬미,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 pp.1-340, 2016.12

3) 통계청, 2018, op. cit.

4) 국내 주택공급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의 인허가 물량은 37.1만호였으며, 2015년 76.5만호로 공급물량이 증가하였음(CERIK Journal, 2016). 정부는 5년(2018년-2022년)간 총 100만호(공적임대 85만호, 공공분양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임(국토교통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2017.11.29). 국내 주택유형은 2016년 기준 아파트 60.1%(10,030천호), 단독주택 23.8%(3,968천호), 연립/다세대 14.9%(2,493천호), 기타 1.2%(202천호)로 아파트의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그 외 40%는 다양하게 개발되어왔음(국토교통부, 2016 인구주택총조사, 2017.08.31., pp.1-101). 특히 아파트는 대량공급과 경쟁으로 인해 끊임없이 평면이나 공간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오고, 그 외 주택들은 방치 및 간과되어 자생적으로 남발하여 왔다고 할 수 있음.

5) 주거약자란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계청, 2016 인구주택총조사, pp.1-94, 2017.08.31

7) 대한주택공사, KNHC. Improvement of Housing Supply System for the Elderly and Participation Plan,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pp.1-141, 1999

8) 양명숙, 노인주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산, 2017

라 노인주택개조까지 증폭되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재정과 민간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주거복지 로드맵(17.11.29)」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자체 등이 희망하는 경우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과 함께 국민임대·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9년 고령자복지주택사업으로 10개소(1,000호 이상)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진행되도록 지자체·LH·지방공사로부터 대상지를 제안받아 선정할 계획이다⁹⁾. 또한 장수명시대를 대비하여 이연숙(2017)는 초고령사회의 한국형 주거복지모델로 각자가 스스로의 삶을 부양하고 케어하도록 지원하는 신개념 미래형 주택인 「생애셀프케어주택¹⁰⁾」을 제안하였다. 셀프케어란 국가도 자녀도 아닌 개인 스스로와 주거공동체가, 건강과 경제적 자립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배려된 주택으로써 노인과 국가 모두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주택유형을 의미한다. 이 주택은 소규모공동체주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 거주자가 독립된 개별주택에 살고, 함께 사용하는 커뮤니티공간을 가지되 거주 이 공간 공동체문화 즉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제공된 주택을 말한다. 이러한 소규모공동체주택은 각 지자체별로 거주자 특성에 맞춤형으로 공급·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하도록 발전될 필요가 있다.

2.2. 노인공동사용주택

노인공동사용주택은 독거노인이나 부부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노인주택 유형의 하나로 소규모의 주택에서 거주자들이 공간을 공동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일명 셰어드하우스(Shared Housing)¹¹⁾으로,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거주하며 개인침실 외 거실, 욕실, 식당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다¹²⁾. 노인공동사용주택은 주거비 및 생활비를 경감할 수 있으며,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친숙한 지역에서 지속적인 사회관계를 맺고 자립적으로 살 수 있다¹³⁾. 이미 고령사회를 겪은 선진국에서는 건강하고 자립적인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주거형태로 셰어하우스(Share house), 코하우징(Co-housing), 컬렉티브하우스(Collective House), 그룹홈(Group Home) 등이 선행연구를 통해 소개되고 공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그룹홈과 공유주택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들 주택이 노인주거대안으로 적절한지 실증 조사하여 도입 가능성을 탐색하고¹⁴⁾¹⁵⁾, 실제로 공동체주택을 개발하기 위해 거주희망자들의 거주선호와 요구를 파악하거나¹⁶⁾, 농촌과 도시 노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워크숍 패널방법을 사용하여 노인주거대안으로 노인공동사용주택이 가능한지, 공동주택의 공간구성의 특성의 지역간 차이, 공동체주택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을 비교한 연구¹⁷⁾ 등이 진행되었다. 이들 선행연구를 통해 공동사용주택은 서로 의존과 호혜적인 교류가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는 주택 유형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주민들의 이웃관계망 회복을 위해 마을공동체 정책을 시행해왔고¹⁸⁾, 주거와 관련하여 독거노인들이 서로 돌보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독거노인 원룸형 안심공동주택을 공급·추진해왔고¹⁹⁾, 국토교통부는 신혼·고령·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다(국토교통부, 2017). 이 중 고령가구 주거지원으로 무장애 설계,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공공임대 5만호 공급, 보유주택을 활용한 생활자금 마련지원, 주택 개보수 등이 주요 과제로 책정되었다. 이처럼 노인을 위한 주택은 점차 노인시설이 아닌 일반임대주택 관점에서 공급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는 노인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획일화된 아파트 위주의 공급실패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 9) 국토교통부, 어르신들 위한 물리치료실·텃밭 갖춘 복합시설...1,000호 이상 추진,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1878, 2019.01.29.
- 10) 국토교통부 R&D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기술 개발」에서는 한국형주거복지 모델로 생애셀프케어주택을 제안하여 선진주거복지연구(이연숙, 「지원주택의 정책과 실천 사례」 국제심포지움, 2017.09.27)에서 발표한 바 있으며, 「한국형 주거복지 모델 2018」에 기술되어 있음.
- 11) 이연숙(2014.11)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한국형 주거복지모델」 R&D연구에서 셰어드 하우스를 광범위한 개념을 지닌 것으로 해석하여 코하우징, 컬렉티브 하우스, 서포티브 하우스, 어시스티드 리빙, 그룹홈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정의한 바 있음(이치혜, 노인공동사용주택 공간구성에 대한 농촌과 도시 노인의 선호 특성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2015에서 재인용).
- 12) 이연숙, 한국형 노인주택 연구: 중년층의 노후생활계획을 통해 본 한국형 노인주택 대안의 잠재적 효용성, 경춘사, 서울, 1993

- 13) Lee, J. H., Lee, Y. S. Comparison of Preferred Features in Spatial Composition for Shared Housing between Rural and Urban Elderly.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Vol. 15, No. 1, pp.29-43, 2015,
- 14) 오찬욱, 그룹 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중심으로 본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 개발을 위한 연구: 부산광역시 단독주택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제19권 제3호, pp.59-70, 2008
- 15) 염혜설, 권오정, ,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시니어 셰어하우스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5권 제6호, pp.123-132, 2014
- 16) 박혜선, 하미경, 도시형 코하우징 관심자의 거주요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25권 제6호, pp.1-10, 2014
- 17) Lee, J. H., Lee, Y. S., 2015, op. cit.
- 18)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안현찬, 구아영, 조윤정,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268호 2019.1.28, 서울 : 서울연구원, 2019
- 19) 서울특별시, 독거어르신 1천명에 '원룸형 안심공동주택' 첫 공급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40966?tr_code=sweb,2015.05.20.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되는 맞춤형 적정주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구체적 요구파악이 필요하다.

2.3.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취약계층 맞춤형 공동체주택 선행연구

공동체주택은 미래 주거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혈연, 비혈연, 동일 연령대, 다양한 세대 등의 사회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공동체는 개인의 복지를 보장하면서 국가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거주자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원활한 공생관계가 조성되어 외롭고 고립된 거주환경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경우 이들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의 주택과 같이 거주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주택공급업체에서 제한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박선경 외3인, 2003). 또한 공동체주택에서의 공동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서로 원하는 것을 절충해서 조성할 기회도 없었으며, 특히 취약계층 스스로의 의견을 표출하고 서로 의견을 교류하여 합의하는 기회를 경험한 바도 없고, 이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공급업체 위주의 표준화된 주택공급의 소극적 참여계획유형을 개선하여 다양한 범위와 방법을 통해 거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²⁰⁾, 다양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참가기술방식 등의 연구가 언급되었다²¹⁾. 이에 사용자참여계획연구가 실시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예지와 이연숙²²⁾은 지역밀착형 보육지원시설의 공간을 계획하기 위해 지역주민, 학부모, 보육관련자, 보육전문가, 어린이집단이 참여한 워크숍을 통해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합의하고 절충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반영된 공간계획을 도출하였다. 또한 Lee, J. H., Lee, Y. S.²³⁾는 노인공동사용주택 계획에 노인이 참가한 소규모워크숍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요구 사항을 추출하고자, 워크숍진행 과정에서 교육자료, 공간기능 픽토그램 블록, 공간 보드, 도면 등 참여 콘텐츠도구를 활용하여 노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노인에게 공동사용주택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제공하고 공동체주택이 노인주거대안으로서 보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노인 주택계획의 물리적인 체제뿐만 아니라 주택에 내재되어 있는 거주자들의 주생활

요구를 파악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요구표출과 참여계획 반응, 합의역량 등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장애인, 탈노숙인, 고시원거주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용자참여계획방법을 사용하여 공동체주택에 대한 워크숍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장애인집단²⁴⁾의 경우 장애인의 요구조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이들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보다 객관적·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장애인의 생활 편의에 적절한 생활공간면적 확보, 지역사회와의 소통 활성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요구가 표출되었다. 탈노숙인집단²⁵⁾의 경우 공동체 소속감과 사회적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적절한 주거공간을 원하였고 안정된 생활이 영위되었을 때 사회복귀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탈노숙인집단은 워크숍 초반에는 의견표출과 면담에 어려움을 보였으나 직접 계획하면서 애착감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주거를 통해 삶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고시원집단²⁶⁾은 과거 또는 현재 고시원생활을 경험하였고 동시에 이들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을 오래 지켜 본 집단으로서 유동적인 가구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원하였고, 안정적인 사회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용공간과 공동체 활동을 요구하였다.

각 집단의 워크숍 과정에서 활용되어진 시각적 조사도구는 참여자들의 관심과 요구 표출정도를 높이고 소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방안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용자참여주택계획연구는 취약계층들에게 공급자위주가 아닌 사용자 위주 맞춤형 주택계획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거주이웃간의 요구들을 이해하고 절충과 동의를 거쳐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이는 무엇보다 거주 공동체문화를 생성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고령자의 공동체주택 계획요소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가 직접 주택계획에 참여하는 소규모워크숍 방법으로 진행되었다²⁷⁾. 사용자참여계획방법은 참

20) 정경진, 박선경, 하재명, 공동주택에서 사용자 참여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0권 2호, pp.51-54, 2000

21) 박우장, 주거 디자인의 사용자 참가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4호, pp.137-145, 2000

22) 임예지, 이연숙,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밀착형 보육지원시설 계획 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 Vol.29, No. 12, pp.15-23, 2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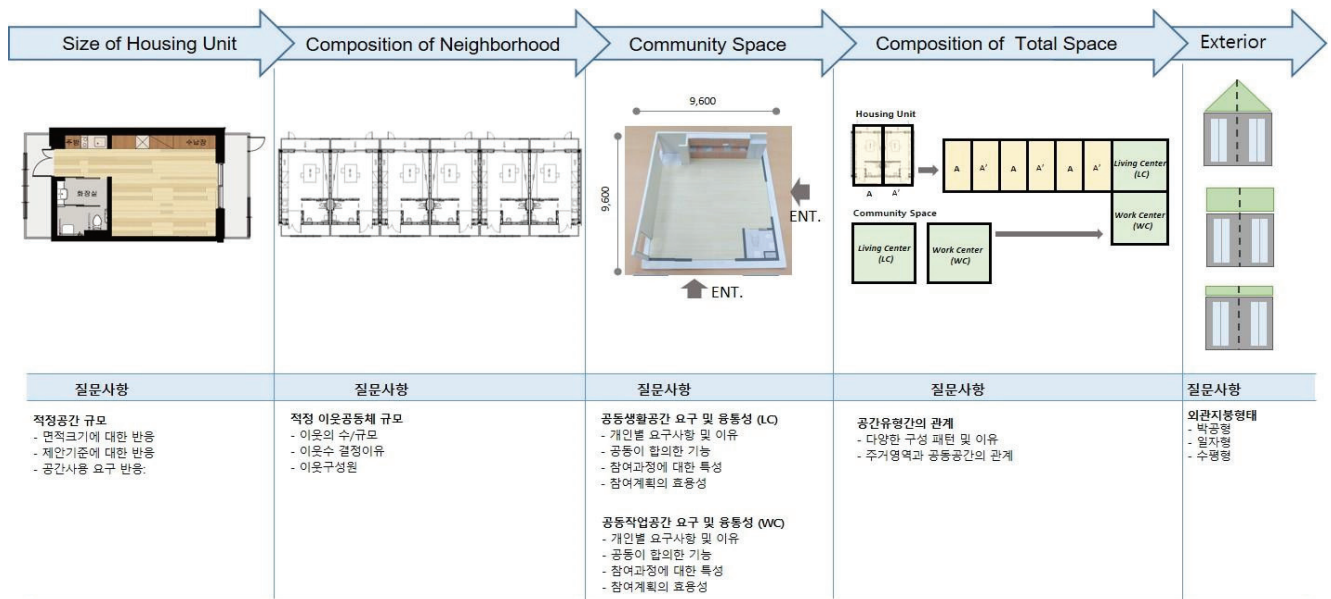
23) Lee, J. H., Lee, Y. S., 2015, op. cit.

24) 이연숙, 전은정, 박희은, 김혜연, 장애인 소규모공동주택 계획요소 추출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계획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Vol.27, No.4, pp.23-34, 2018

25) 박재현, 이연숙, 김혜연, 탈노숙인을 위한 사용자참여 소규모공동주택 계획 연구, 한국주거학회, Vol.29, No.2, pp.19-29, 2018

26) 이연숙, 박재현, 조승연, 전은정, 조선희, 소규모공동주택 계획요소 도출을 위한 고시원거주자 참여계획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Vol.18, No.2, pp.71-79, 2018

27) 본 연구는 소규모공동주택의 사용자참여계획에서 다양한 취약계



<그림 1> 연구의 흐름과 워크숍 도구

여자들의 심도있는 의사소통을 통해 참여자의 요구가 표출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적합한 주거계획의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노인 참여자들은 부부노인집단, 여성독거노인집단 그리고 남성독거노인집단으로 각각 3명으로 총 9명이 3집단²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집단별로 약 2시간 동안 공동체주택계획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때 3집단을 계획한 것은 다양한 노인가구의 구성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 친밀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요건으로써 부부가구, 독거가구로 하였고, 독거라도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으로 성별특성²⁹⁾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또 각 집단별로 보다 동질적인 커뮤니티구성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대상자는 클러스터 표집의 성격과 편의적 임의표집을 고려하였다. 즉 노인들의 사회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시설, 노인복지회관, 종교단체 등이 대상자를 선택하는 클러스트가 될 수 있는데 동일 종교인 경우 더욱 커뮤니티를 수월히 도모할 수 있다는 관점과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동일 종교시설에서 서로 알고 있어서 서로 이야기를 함께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집단으로 선정하였다³⁰⁾. 먼저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본 연

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³¹⁾. 노인 참여자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수월한 이해와 소통을 위해 진행자 1인, 보조연구원 3인이 참가하였다. 소규모공동체주택의 개별단위주거는 국토교통부 R&D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³²⁾에서 제안한 최소주거단위로서 34.5m²(약 10.5평)의 주거면적에 무장애 화장실, 간부벽, 시스템가구를 포함하고³³⁾, 이 공간에는 휠체어 사용자도 수월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이 반영되었다. 참여자들이 논의하고 합의하여 진행된 워크숍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자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제시된 개별단위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한 생활용품들을 정리하여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또한 공동사용공간이 주어지고, 단위주거의 생활방식에서 필요한 가구(침대, 책상 및 의자, 소파, 수납 등)구성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여, 각각 주거공간에 적절히 생활재 배치를 구상하게 하고, 생활행위를 대입하여 공간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하였다. 둘째, 어느 정도의 이웃규모일 경우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지, 또한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도모하

30) 네덜란드의 치매노인 주거공동체시설인 'De Hogeweyk'에서는 노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도시적', '문화적', '가정적', '중상류층', '전통, 수공업적', '인도네시아풍', '기독교적'의 7가지유형으로 구분하여 가치관 및 행위가 유사한 거주자들이 공동생활을 하도록 함. 그 중 노인의 생활양식에서 종교적인 관점도 중요시되고 있음.

31)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었음.

32) 국토교통부 R&D주거복지실험을 위한 정책기반구축 및 주거환경개선 기술개발

33) '공공임대주택의 1인가구를 위한 적정면적개선 방안 연구'에서 인구 다변화와 장애인 및 고령자를 배려하여 휠체어 사용을 고려한 공간면적인 9.8-10평의 최저주거기준을 제시하였음.(현지원, Study on improvement of appropriate area for single of public rental houses,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2018)

기를 원하는지를 논의하고 합의하도록 하였다. 셋째, 공동체공간 속에서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과 일을 하고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드는 공간이 주어진다면 어떠한 기능을 선택할 것인가를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안을 도출하게 한 다음 이를 실제 3D모형에 배치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안을 재확인하고 적정 배치 특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개별단위주거와 커뮤니티공간의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와 주택의 3가지 외관형태에 대한 합의사항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개별단위공간의 경우에는 인체측정치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제시하였고, 커뮤니티공간의 경우는 약 27평의 공간크기가 적정하다고 제안하기 보다는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의견들을 추출하기 위한 것이다.

워크숍참여 도구는 참여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워크숍진행 설명 보드, 1/30 스케일 로 축소한 3D공간모형과 2D공간배치 보드, 가구배치용 아이콘³⁴⁾, 공간이미지 설명카드 등의 시각자료와 보조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이들 도구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서로 의견을 제시하여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선택과 합의를 도모하도록 하였고, 합의에 대해 이의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진행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이 연구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논의 및 질문지 등에 대한 응답에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타당도³⁵⁾와 신뢰도³⁶⁾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가³⁷⁾ 워크숍 진행 녹음파일과 녹취를 점검하여 참여자들의 의견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워크숍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공동체주택 워크숍 참여자는 일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집단, 여성독거집단, 남성독거집단으로 각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노인 참여자 집단별 특성

	부부가구(집단1)	여성독거(집단2)	남성독거(집단3)
참 여 자 A	성별: 여 (만 61세) 직업: 무직 배우자: 동거 최종학력: 고등학교 소득원: 배우자소득+자녀지원 주택유형: 연립주택/빌라 주거면적: 23평 거주형태: 전세 거주기간: 2년	성별: 여 (만 65세) 직업: 무직 배우자: 동거 최종학력: 중학교 소득원: 배우자소득+자녀지원 주택유형: 아파트 주거면적: 25평 거주형태: 자가 거주기간: 2년	성별: 여 (만 66세) 직업: 무직 배우자: 동거 최종학력: 초등학교 소득원: 배우자 연금 주택유형: 아파트 주거면적: 25평 거주형태: 자가 거주기간: 8년
	성별: 여 (만 74세) 직업: 무직 배우자: 사별 최종학력: 중학교 소득원: 연금+자녀지원 주택유형: 다세대/다가구 주거면적: 17평 거주형태: 월세 거주기간: 10년	성별: 여 (만 80세) 직업: 무직 배우자: 사별 최종학력: 초등학교 소득원: 연금 주택유형: 임대아파트 주거면적: 11평 거주형태: 전세 거주기간: 6년	성별: 여 (만 84세) 직업: 무직 배우자: 사별 최종학력: 초등학교 소득원: 연금 주택유형: 다세대/다가구 주거면적: 24평 거주형태: 전세 거주기간: -
	성별: 남 (만 71세) 직업: 무직 배우자: 요양원 최종학력: 고등학교 소득원: 연금 주택유형: 아파트 주거면적: 49평 거주형태: 자가 거주기간: 6년	성별: 남 (만 73세) 직업: 서비스·판매직 배우자: 별거 최종학력: 대학교 소득원: 국가/기관보조 주택유형: 연립주택/빌라 주거면적: 35평 거주형태: 자가 거주기간: 3년	성별: 남 (만 75세) 직업: 무직 배우자: 별거 최종학력: 중학교 소득원: 연금+자녀지원 주택유형: 아파트 주거면적: 17평 거주형태: 월세 거주기간: 10년

부부집단은 자녀들이 독립하여 노인부부만 거주하고 있는 61세, 65세, 66세인 여성노인³⁸⁾으로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 연립주택/빌라의 23평, 25평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 주택에서 2년에서 8년까지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배우자의 소득과 자녀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학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여성독거집단은 배우자와 사별 이후에도 생활에 큰 변동 없이 혼자생활을 해온 74세, 80세, 84세의 여성노인들로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연금과 자녀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다세대/다가구와 임대아파트의 11평, 17평, 24평에서 6년, 10년 동안 거주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남성독거집단은 배우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개인사정으로 배우자와 별거 중으로 혼자거주하고 있는 71, 73세, 75세의 남성노인집단이다. 이들은 아파트, 연립주택/빌라에서 3년, 6년, 10년 동안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면적 17평, 35평, 49평에 살고 있다. 이들은 연금, 자녀지원, 국가/기관보조, 개인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두 명은 퇴직하여 무직상태이며 한명은 서비스 및 판매직에 종사

34) 가구배치용 아이콘은 1/30 스케일로 축소한 것으로 개별단위주거의 경우 침대유형(싱글, 더블, 트윈, 사용안함), 소파 및 의자, 테이블, 수납용량(소량, 중량, 대량, 필요없음), 커뮤니티공간의 경우 소파 및 의자, 테이블, 운동기구, 컴퓨터기계, TV, 수납가구, 화분 등의 생활제로 구성됨.

35) 타당도란 연구주제에 대한 응답이 제대로 도출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실행되었는가의 정도임.

36) 신뢰도란 연구의 자료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의 정도임.

37) 워크숍에 참석한 전문가는 총 8시간의 녹음파일과 기록물을 대조하고 정확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음. 또한 본 연구의 워크숍방법은 사회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각 취약계층별로 유사한 연구방법이 진행되었음. 본 연구는 고령자 대상 연구자료를 수집 분석한 것임.

3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①법 제36조 규정<개정 2008. 1. 28.>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에서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은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음. 이는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65세 이상이 아니어도 이미 한사람이 65세 이상 노인이면 노인가구의 생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인가구 배우자로서 참여하였음.

하고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모든 참여대상자들은 자녀와 비동거 중인 60세 이상의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집단이며, 노인부부 외에는, 배우자의 병환, 별거, 사별 등을 경험한 집단이다. 이들의 생활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연금과 자녀의 지원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다양하였다. 노인부부인 경우 다른 참여자들 보다 연령이 낮고, 여성독거가구보다 남자독거가구의 경우가 교육수준이 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4.2. 계획요소에 대한 노인집단의 반응

소규모공동체주택 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를 개별단위주택면적, 이웃규모, 공동생활공간, 공동작업공간, 개별단위주거와 커뮤니티 공간 배치의 순으로 구분하고 각각 노인집단 유형별 반응결과를 기술하고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개별단위주거

개별단위주거로 제시된 10.5평의 단위주거공간은³⁹⁾ 화장실, 간이주방, 발코니, 수납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자립생활이 가능한 원룸으로 1-2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각 집단별 공간 활용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부부집단은 현재 살고 있는 주거규모를 2명이 생활하기 적절한 공간으로 여기고 있으나, 취미생활을 위해 보다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기를 원하였다. 이에 제안된 개별단위주거 면적이 부부가 살기에는 협소하게 인지하였다. 그러나 별도로 공동공간이 제공되고 공동생활에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짐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혼자 살게 되는 상황에서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을 감안하고, 앞으로 가구 및 생활용품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을 인지하여 적절한 규모로 인식하였다. 특히 기본적으로 주거의 한 벽면에 생활재를 수용할 수 있는 수납이 있다는 전제로 침대, 침대와 소파, 그리고 침대와 테이블 등 소량의 가구만을 요구함으로써 주어진 면적이 충분함을 인지하였다. 또한 개별단위주거가 협소하여도 공동생활공간이 주어지고, 이 공간에서 취미활동이 유지되는 것에 만족하였다.

여성독거집단은 현재 살고 있는 주거공간이 자녀와 친지가 모이는 명절에는 좁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평소 혼자 살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면 제안된 개별공간을 합리적인 주거면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수납공간이 설치되어 생활재가 잘 정리되고, 각자 침대와 소파, 침대와 의자 및 식탁세트 등 가장 기본적인 생활가구만 요구하

고 있어 제시된 개별단위주거 면적이 충분함을 인식하였다.

남성독거집단은 현재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어 주거 공간 규모가 줄어들 경우 실내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주택 관리비용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사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휴식과 취침을 위한 안식처로 거듭날 수 있는 공간을 원하였다. 이에 제안된 주거공간에서 혼자 사는 상황을 고려하고, 생활재의 정리가 필요함을 인지하여 적절한 규모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버리기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거나, 취미생활을 위한 도구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 충분한 수납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주거면적으로 10.5평은 협소한 공간이지만, 자녀들이 가끔 방문하고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적절한 공간규모로 받아들였다. 생활방식에서 온돌과 책상, 침대와 안락의자, 침대와 소파 등 가장 기본적인 생활가구만을 요구하였고 모든 참여자들이 충분한 수납장을 요구하였다.

(2) 이웃관계 형성

함께 거주하는 이웃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적절한 이웃규모에 대한 구상과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여 가장 친밀한 이웃구성을 살펴보았다.

부부집단은 이웃규모로 각각 3가구, 5가구, 10가구가 적정하다고 제시하였다. 실제 커뮤니티운영에서 이웃규모가 적을 경우 커뮤니티서비스 제공, 경제적인 부담 등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보다 친밀한 이웃 조성을 위해 6가구가 절충적 수임을 합의하였다.

여성독거집단은 모든 참여자가 가장 친밀한 이웃을 구성하는 데에 적절한 이웃규모로 10가구가 적절하다고 여겼으며, 이 10가구는 최소 규모라기보다는 최대 규모라는 데에 의견을 일치하였다. 이들은 10가구가 넘어갈 경우 커뮤니티를 위한 합의나 결속을 다지기가 어렵고, 사회적인 소통·교류와 일상생활에서의 식사 등의 공동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남성독거집단은 각각 10가구, 5가구, 20가구가 적정하다고 하였고 10가구일 경우 가깝게 잘 지낼 수 있으며 5가구일 경우 가족적인 분위기로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중 가장 많은 가구를 제시한 참가자는 현재 6가구의 연립주택/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웃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경험으로 인해 자신과 친밀한 친구들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였다.

함께 거주할 이웃규모는 불특정 소수의 거주민들이 함께 거주하게 될 경우를 감안하였을 경우, 이웃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커뮤니티를 위한 합의나 결속이 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세대가 가장 적절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였다.

39) 『국도교통부R&D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에서 제안된 유니버설디자인의 최소주거단위로 화장실, 간이부엌, 시스템가구가 포함된 주거공간으로 누구나 지속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인권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제시한 크기임(이연숙, 2017, op.cit.)

(3) 공동생활공간

공동생활공간은 거주자들이 모여 일상적으로 공유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 사회적 교류, 정서적 생활, 신체적 단련, 생활관리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이 각자 원하는 기능을 제시하고 설명하여 교류한 뒤 함께 적절한 기능을 모색하여 합의하도록 하였다.

부부집단(집단1)은 공동생활공간이 여유로운 공간으로 확보되기를 원하였으나 참여자들의 요구들이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합의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계획하고자 하였다. 이에 종교활동을 위한 교류기능을 우선시하였으며, 카페교류, TV시청, 휴식담소, 조리/식사, 실내조경, 운동 등 다양한 기능을 포용하기를 원하였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 교류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으며, 한 공간에서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기능별로 가구를 배치하여 구별하였다. 이들의 합의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1-A: 저는 종교 활동이 중요해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실내조경이 조금 있어야 해요. 물건을 수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집단1-B: 저도 예배처소 용도로 쓰고, 여기는 학습 공간으로 쓰고, 그리고 저는 실내조경, 운동 시설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단1-C: 저는 카페, 그리고 TV시청, 휴식담소, 실내조경, 운동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여성독거집단(집단-2)은 조리 및 식사를 하고 서로 담소를 나누고 게임도 하고 TV시청을 함께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였다. 이들은 공동식사 기능에서 식성이 다르므로 각자 자유롭게 식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으나 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을 조절해서 건강한 식생활과 사회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식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집단2-B: 식사하고, 좌담회식으로 앉아서 커피숍처럼 얘기할 수 있으면 합니다. 10명이 모여서 얘기하면 시간이 잘 갈 것 같아요.

집단2-A: 저도 공동식사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집단2-C: 저는 TV시청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식사하고 좌식으로 앉아서 다 함께 얘기하는 공간이면 좋겠어요.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성독거집단(집단-3)은 함께 조리 및 식사를 하고 TV시청을 하며, 일상적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휴식과 사회교류의 장이자 운동과 세탁을 겸용하는 거실과 같이 활용하길 원하였다. 특히 이들은 서툰 식사준비 및 불규칙한 식사생활과 이웃교류가 활성화되기를 요구하였으며, 공동생활공간이 공동식사를 할 수 있는 기능, 개별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화 기능, 그리고 TV를 통한 교류 기능 등 다양한 교류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다. 이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적정 이웃규모로 선택한 10가구를 기준으로 생활가구의 수와 배치를 의논하고 공간사용이 적절하도록 공간을 계획하였다.

집단3-C: 저는 공동조리공간이 1순위입니다. 두번째는 담소가 중요하죠.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집단3-A: 저는 장기, 바둑 등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식후에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정도 놔두면 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시간도 보내고, 텔레비전 보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간이면 합니다.

집단3-C: 10명이 모이면 왁자작할 것 같아요.

공동생활공간의 경우 거주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거실 기능을 공통적으로 요구하였다. 특히 독거노인 참여자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공간적 요구를 보였다.

(4) 공동작업공간

공동작업공간은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조업, 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이 가능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전제로 적합한 기능을 합의하도록 하였다.

부부집단은 식당, 어린이데이케어, 예술활동, 밑반찬 작업실 등 거주자 외에 지역주민을 포함한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하였다. 이 중 식당은 경제적인 수익은 기대할 수 있으나, 신체적인 노동력과 연령을 고려하여 어린이데이케어와 어린이의 식사제공을 위한 밑반찬 작업을 겸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참여자들은 육아경험이 있고, 가사 일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점과 어린이데이케어를 개인별로 시간을 정하여 융통성 있게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계층이 함께 앉아서 서로를 보면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라는 점에서 서로 합의하여 선택하였다. 또한 활기찬 어린이를 돌보면서 생기와 활력을 얻고 정서적으로 힐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집단1-A: 어린이데이케어는 애들이 오면 우리가 힐링이 되잖아요.

집단1-B: 네. 저도 어린이데이케어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집단1-B: 밑반찬도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식사제공이 필요하니까.

집단1-A: 저는 앞으로 미술치료 증을 팔 거예요.

여성독거집단은 거주자들이 모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고, 각 공간 영역별로 분위기를 연출하고 적절한 생활가구를 배치하기를 원하였다. 이들은 거주자간의 교류를 중시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사회교류장소로 활용하기를 원하였다. 단순한 작업인 봉투접기 등 특별한 기술을 익히지 않고 노인이 쉽고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일거리 기능이 갖추어진 공

간으로 활용이 되기를 서로 합의하였다. 이들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벗어날 수 있고 일상적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기를 원하였다. 또한 작업공간은 능력과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참여할 수 있으며 서로 이야기 하면서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가구배치와 충분한 수납시설이 설치되고 일을 남품받아서 작업하는 부업위주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집단2-A: 저는 액세서리 가공이 좋아요. 누구나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수량을 많게 또는 적게 할 수도 있고 같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쉬운 일 인 것 같아요.

집단2-B: 저는 원예작업 즐겁고 활동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집단2-C: 저는 밑반찬이 좋을 것 같아요.

집단2-B: 원예하면서 밑반찬도 할 수 있잖아요.

남성독거집단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수월하고 단순한 작업인 봉투접기, 악세사리 제조 등의 일거리를 희망하였다. 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작업하면서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설비, 수납시설도 함께 요구하였고, 휴식을 위해 차를 마시거나 담화를 할 수 있는 안락한 가구배치와 공간계획을 논의하고 합의하였다. 이들은 경제적인 이익보다 주택과 인접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고, 건강과 활동의 기회로서 본인들의 신체에 무리가 없는 작업을 요구하였으며,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작업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였다.

집단3-C: 소일거리나 바둑 같이 생각하고 조금씩 머리를 움직이는 일을 해야 치매예방도 되고 좋습니다.

집단3-A: 저는 특별한 기술은 없는데 뭘 만지는 걸 좋아합니다. 멀쩡한 것도 뜯어봐야해, 내부가 어떻게 돼있는지 보는 것 좋아합니다.

집단3-C: 우리가 소일거리로 액세서리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전문교육도 받아야 하고 재능도 있어야 해요. 또 비용도 많이 들고 노인들이 만들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공동작업공간의 경우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교류가 지속되고, 경제적 공동체를 조성하여 무료한 노후기간을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였다.

(5) 개별단위주거와 커뮤니티 공간의 배치

개별단위주거와 커뮤니티공간인 공동생활공간, 공동작업공간을 전체 배치하도록 하고, 이들의 관계 및 접근성을 살펴보았다.

부부집단은 모든 개별단위주거를 남향으로 하여 일조량을 받을 수 있도록 일렬로 배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개별단위주거와 커뮤니티공간을 복도를 두고 마주보게 위치시키고, 공동생활공간과 공동작업공간 사이에 마당을 두고 후자를 외곽에 배치하였다. 이는 모든 거주자들

이 함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생활공간과 거주자 외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작업하는 공동작업공간을 멀리함으로써 공간을 명확히 구획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합의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1-A: 집들은 6집이니까 이렇게 하면 낮지 않을까? 서로 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집단1-B: 생활의 편리성은 있겠어요.

집단1-C: 서로서로 공간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고.

여성독거집단은 개별단위주거와 커뮤니티공간들을 인접하게 배치하고, 모든 이웃이 보다 근접하게 커뮤니티공간과 접근성을 지니면서 채광을 받을 수 있는 향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이들은 커뮤니티공간이 상대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짧고, 일시적으로 모여서 사용하는 공간임을 언급하였으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개별단위주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L형 주택배치가 모든 주거에 평등하게 남향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추천하여 선택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해결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환경요소로서 채광, 특히 남향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시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전체건물 배치에서 개별단위주거가 매우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커뮤니티공간은 비록 외부인들도 사용하지만 결국은 거주자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여 계획하였다.

집단2-A: (10세대일 경우)이렇게 놓는 것 보다 이게 낮지 않을까?

집단2-B: 공동공간에서 생활하는 건 아니니까. 외부사람들은 상관없어도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이렇게 놓으면 기억자로 놓는다고 하면은 뒤쪽에 빛이 못 받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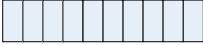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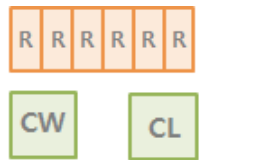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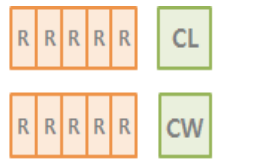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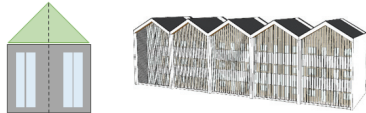
남성독거집단은 개별단위주거를 일렬로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고 개별단위주택의 가장자리에 두 개의 커뮤니티공간을 분리하여 배치하였다. 이는 거주자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방문하여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내부단지에 들어오지 않고도 다닐 수 있도록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건물을 균등하지 않으나 모든 주택에 채광이 들 수 있도록 동서향으로 위치하는데 합의하였다.

집단3-C: 다 남향으로 못 맞추더라도, 가급적 북향집은 빛이 더 들어야 하니까 집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집단3-B: 동, 서향집으로 지어야 한대니까요. 동향집을 지으면 아침에 햇빛이 다 들어옵니다. 오후에는 서쪽으로 빛이 들어오구요.

개별단위주거와 커뮤니티공간을 배치함에 있어서 부부가구집단은 최대한 분리하기를 원하였고, 남성독거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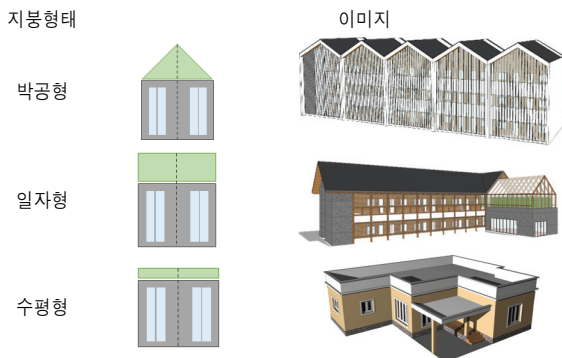
<표 2> 사용자 참여워크숍 집단별 분석결과

세부주제	1집단-부부가구집단	2집단-여성독신가구집단	3집단-남성독신가구집단	종합
단위주거면적	10.5평, 안전·자립생활 적정면적 큰 현재규모를 10.5평 축소가능 	10.5평, 안전·자립생활 적정면적 10.5평 정도가 적절 	10.5평, 안전·자립생활 적정면적 큰 현재규모를 10.5평 축소가능 	안전과 생활자립 중시하여 10.5평 수렴 공동공간 제공 시 개별공간 축소가능
적정이웃규모	3-6가구(6가구 합의) 부부가구 공동체 감안 	10가구(10가구 합의) 소규모 안정적인 이웃관계 추구 	5-10가구, 32가구(10가구 합의) 소규모 안정적인 이웃관계 추구 	10명 혹은 10가구 내외 중시 이웃관계의 친밀성 중시
공동생활공간 (리빙센터) 기능	카페교류, TV시청, 담소·휴식 사회적 교류 중시 	조리/식사, TV시청, 담소·휴식 건강한 식생활과 사회교류 중시 	조리/식사, 담소·휴식, 운동 건강한 식생활과 사회교류 중시 	친밀한 담소·휴식은 공통요구 독거 식사, 남성 운동, 부부 교류 중시
공동작업공간 (워크센터) 기능	어린이데이케어센터 정서 및 사회교류 활성화 중시 	악세사리 제조/가공실 사회활동 기회 	악세사리 제조/가공실 사회활동 기회, 사회교류 지속성 중시 	독거 소일거리, 부부 사회적 공생활동 사회활동 기회와 사회교류 지속 중시
단위공간과 공동공간의 전체구성	단위주거 가장자리에 CC 배치 리빙/워크센터 최대한 분리 	단위주거 중앙 CC 배치 리빙/워크센터 밀착연계 	단위주거 가장자리 CC 배치 리빙/워크센터 일정간격 분리 	LC와 WC의 기능별 접근 차별성 부부, 남성독거, 여성독거 순으로 CC간 연계강화
지붕형태	 (박공형 지붕)			친근한 주택이미지, 각 소단위 정체성 부여, 외관이미지의 연속성 부여
소규모 공동체주택 인식	주거복지문제해결 기여에 공감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보급필요	주거복지문제해결 기여에 공감 지자체/민간 공공임대주택 보급필요	주거복지 문제해결 기여에 공감 지자체 공공임대주택 보급필요	자신들의 문제 해결대안 가능성 고령자주거대안의적정성인식·보급희망
종합	소형 단위주택으로 건강한 자립생활이 가능한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와 지속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및 기회확할 공동생활공간(리빙센터:LC)은 특히 현 주택 규모 축소에 기여하고, 노후 자립적 건강기간 연장에 기여 공동작업공간(워크센터:WC)은 이웃관계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내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 사회적 배제현상을 경감시키는데 기여 적정주택으로 이동 열망이 있으므로 다양한 맞춤형 소규모공동체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개발하여 임대 축진이 바람직			

은 적정 범위를 유지하였고, 여성독거집단은 인접하도록 배치하여 커뮤니티공간의 기능별 접근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6) 외관 지붕형태

외관 지붕의 형태를 박공형, 일자형, 수평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선호를 조사하여 합의한 결과 세 집단 모두 박공형 형태로 계획하기를 원하였다<그림 2>.



<그림 2> 외관지붕형태 2D, 3D 도구 이미지

집단2-A: 일단 묶여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좋네요. 다른 건 너무 단면적으로 기존에 살았던 아파트 느낌이 들어서... (박공형)같이 살면서도 내 공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단3-A: 난 단독 박공이 좋겠어요. 단독이니까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되어있으니까 좋겠어요.

집단3-C: 이것 일자형 학교 같은 기분이고, 박공이 좋습니다.

집단3-B: 나도 왜냐하면 박공은 열을 많이 안 받아서 좋을 것 같아요.

이는 기존의 아파트나 건물 같은 이미지가 아닌 친근한 주택느낌을 받을 수 있는 형태라는 의견과 함께 각 소단위의 정체성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하였다.

공동체주택 계획요소에 대한 노인집단의 반응 공간구성에 대해 집단별로 분석하여 그 특성을 종합해보면 다음<표 2>과 같다.

4.3. 선행연구와의 비교논의

본 연구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공동체주택을 계획하는데 그들을 일반적인 공급대상이 아닌 수요대상으로 인식하여 보다 적절한 계획요소의 도출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나아가 취약계층도 동일적 집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다양한 세부집단이 있음을 중시하여 이들 요구의 일관성과 차별성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동일연구방법으로 다른 취약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논의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장애인⁴⁰⁾, 탈노숙인⁴¹⁾, 고시원⁴²⁾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참여자들은 소형 단위주택으로 건강한 자립생활이 가능한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와 지속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및 기회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공동체주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이해관계자들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보조기구 사용이 자유롭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넓은 공간면적을 요구하였고, 탈노숙인 참여자들은 향후 가족구성원의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제시된 주거면적이 적절하다고 하였고, 고시원참여자들은 필요 적절한 생활재를 가질 경우 제시된 주거면적은 건강과 활동에 충분한 공간면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며 나아가 현재 주거공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임에도 소형으로 공간을 축소하는데 동의를 보였다. 이는 노인의 노후생활 정리와 더불어 공간규모의 적정 재배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요구가 대부분 해결 지향형이 아니라 정체되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취약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소규모공동체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동생활공간의 경우 노인참여자들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규모 축소에 기여하고, 노후에도 자립적으로 건강함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장애인 이해관계자들은 장애인들의 시지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적인 놀이 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공간이기를 원하였고, 탈노숙인 참여자들은 개인생활공간의 연장공간으로 공유공간을 통해 거주자간의 사회적 교류 기능을 요구하였고, 남성은 건강증진, 여성은 사회적 교류의 공간을 원하였다. 고시원참여자들은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공동체 소속감과 지역사회와의 소통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동생활 공간으로 구성되기를 요구하였다. 이는 대상계층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능적 요구를 드러내었으나, 궁극적으로 공동생활공간에 유용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게 하였다.

공동작업공간의 경우 노인참여자들은 이웃관계 증진과 지역사회 내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 사회적 배제를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졌다. 외롭고 무료한 노후 기간을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장애인 이해관계자들은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기반한 작업공간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소통교류가 공간으로 활용되길 원하였고, 탈노숙인 참여자들과 고시원참여자들은 이웃간과 지역사회 내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기회를 수월하게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공동생활공간을 원하였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대개 사회취약계층으로써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 안주하고 이들이 처해있는 주거환경을 보다 좋은 환경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도전정신이

40) 이연숙, 전은정, 박희은, 김혜연, 2018, op. cit.

41) 박재현, 이연숙, 김혜연, 2018, op. cit.

42) 이연숙, 박재현, 조승연, 전은정, 조선화, 2018, op. cit.

부족한 집단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이러한 주거문제들을 참여자들은 워크숍과정을 통해 흥미를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또한 노인들은 고집스럽고 타협이 어려운 성향을 가진다고 하지만, 참여자들은 이해력이 높았으며 의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물론 참여도구의 효과도 있으나,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외로움을 느끼고 같이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노화로 인해 각종 기능들이 쇠퇴해지면서 건강 우려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소규모공동체주택이 본인들의 생각해 왔던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동체는 반드시 공동으로 만족해야하기 때문에 서로 의논과 합의 과정이 반복되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합의과정에서 설득하기도 하고 설득을 당하기도 하며 서로의 이해기반을 넓혀가면서 포용력 있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노인들의 공간을 계획하는 역량이 강화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흥미를 느끼며, 집중하고, 활발하게 반응을 하였다. 이들 세 집단 노인들이 여러 동일 유형의 노인 집단들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나 실제 이 워크숍 결과를 보편적이라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노인들이 참여자가 되는가에 따라, 또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는가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 상황이 노인집단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유사하여 노인을 위한 소규모주택계획이 실시되는 기회가 발생할 경우, 실제 반응할 수 있고, 또 다른 노인 참여자에게도 계획을 이해를 시키며 선도 할 수 있는 참여능력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 참여자들은 건강한 삶을 위한 적정주택에 대한 요구와 의견을 표출하였고, 워크숍진행에 있어서 소규모공동체주택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용자 참여계획 워크숍 과정이 사회취약계층의 공동체주택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식 및 합의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고 주민 사용자 참여 가능성을 여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위한 소규모공동체주택 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연구결과에 따른 계획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단위주거의 경우 제안된 10.5평의 공간면적을 협소하게 인지하였으나, 공동공간이 주어지고 충분한 수납장이 마련될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생활용품들을 정리한다고 가정하여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적절한 규모로 받아들였고, 이웃은 10세대 내외의 친밀한 이웃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를 원하였다.

둘째, 담소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웃간 건강한 사회교류가 조성될 수 있는 공동생활공간, 사회활동의 기회를 통해 거주자의 경제적 안정이 지원될 수 있는 공동작업공간의 기능을 요구하였다. 셋째,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배려되고, 공동공간들의 기능에 따라 공간이 차별적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공동체주택 외관은 친숙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 기반하여 연구분야, 실무분야, 그리고 정책제도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분야에는 구체적으로 셰어하우징, 소규모 맞춤형 공동체 주택들이 다루어지고 있고, 연구되어 왔으나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주민 참여형으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추출한다는 방법론이 사용된 공동주택에 대한 연구들은 이제까지 거의 없었으나 이러한 연구방법이 노인들에게 2시간이라는 시간동안 지루하지 않고 응답을 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연구방법이 앞으로 노인들의 요구, 특히 합의를 도모하는 요구들을 끌어내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실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공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제 건축과 주택을 개발하는 실무계에는 이러한 주민들의 안전과 요구들을 정리하여 설계디자인 전문가에 전달하면 훨씬 수월하게 수요자를 이해한 맞춤형계획과 시행착오가 적은 개발이 실현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공동주택 정책제도의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거주자가 스스로 요구하는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저성장시대로 가면서 노인의 삶이 보다 인간적이고, 함께 모여 삶으로써 힘이 강화되고 서로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소규모공동주택들도 이제 양상, 보급하는 체제로 가야하며, 이러한 주거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 연구는 하나의 실증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주택계획과 공급에 있어 참여문화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적정한 방법으로 잠재적인 요구를 끌어내고 갈등을 완화하는 참여 합의조정 기법은 다양한 주택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민참여계획도구와 콘텐츠는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있어, 사회취약계층이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서 노인집단들의 요구를 표출하게 하고 시간에 대한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하였으며, 더욱이 공간계획이라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합의를 해나가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집단의 계획결과를 우리나라 전체의 보편적 결과대안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아니라, 그를 통해 노인들의 요구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위

크숍에 참여한 노인집단이 적극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표출하고 논의하면서 스스로의 노후생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계획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보다 사용자 참여연구방법의 발전 및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통계청, 2018 고령자 통계, pp.1-73, 2018.09.27.
2. 정경희, 강은나, 이윤경, 황남희, 양찬미,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연구보고서2016-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 pp.1-340, 2016.12
3. 국토교통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pp.1-5, 2017.11.29
4. 통계청, 2016 인구주택총조사, pp.1-94, 2017.08.31
5. 대한주택공사, KNHC. Improvement of Housing Supply System for the Elderly and Participation Plan,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pp.1-141, 1999
6. 양맹숙, 노인주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7. 국토교통부, 어르신들 위한 물리치료실·털발 갓춘 복합시설 1,000호 이상 추진, 2019.01.29.,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1878에서 발췌
8. 이연숙, 지원주택의 정책과 실천사례, 한국주거학회&서울주택도시공사 주최, pp.105-133, 2017.09.27
9. 이지혜, 노인공동사용주택 공간구성에 대한 농촌과 도시 노인의 선호특성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0. 이연숙, 한국형 노인주택 연구: 중년층의 노후생활계획을 통해 본 한국형 노인주택 대안의 잠재적 효용성, 경춘사, 서울, 1993
11. Lee, J. H., Lee, Y. S. Comparison of Preferred Features in Spatial Composition for Shared Housing between Rural and Urban Elderly.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Vol. 15, No. 1, pp.29-43, 2015.02
12. 오찬욱, 그룹 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중심으로 본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 개발을 위한 연구: 부산광역시 단독주택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9권 제3호, pp.59-70, 2008.06
13. 엄혜실, 권오정,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시니어 셰어하우스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5권 제6호, pp.123-132, 2014
14. 박혜선, 하미경, 도시형 코하우징 관심자의 거주요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5권 제6호, pp.1-10, 2014
15. 안현찬, 구아영, 조윤정,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268호, pp.1-20, 2019.01.28
16. 서울특별시, 독거어르신 1천명에 '원룸형 안심공동주택' 첫 공급,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40966?tr_code=sweb, 2015.05.20.에서 발췌
17. 정경진, 박선경, 하재명, 공동주택에서 사용자 참여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0권 2호, pp.51-54, 2000.10
18. 박우장, 주거 디자인의 사용자 참가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4호, pp.137-145, 2000.09
19. 임예지, 이연숙,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밀착형 보육지원시설 계획 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9 No. 12, pp.15-23, 2103.12
20. 이연숙, 전은정, 박희은, 김혜연, 장애인 소규모공동주택 계획요소 추출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계획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7 No.4, pp.23-34, 2018.08
21. 박재현, 이연숙, 김혜연, 탈노숙인을 위한 사용자참여 소규모공동주택 계획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29 No.2, pp.19-29, 2018.04

22. 이연숙, 박재현, 조승연, 전은정, 조선휘, 소규모공동주택 계획요소 도출을 위한 고시원거주자 참여계획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18 No.2, pp.71-79, 2018.04
23. 양승민, 정규형, 최재성, 노인의 성별차이에 따른 사회활동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제72권 3호, pp.225-250, 2017.09
24. 현지원, Study on improvement of appropriate area for single of public rental houses,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2018
25. 통계청, 2017 고령자 통계, pp.1-59, 2017.09.26.

[논문접수 : 2019. 08. 05]

[1차 심사 : 2019. 09. 25]

[2차 심사 : 2019. 10. 26]

[게재확정 : 2019. 12. 10]